

김성균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Park.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7일 뉴튼에 위치한 총영사관내 총영사 집무실에서 이임 인터뷰를 하며 과거를 소회하고 있는 김용현 총영사. 총영사는 30일 한국으로 떠난다

이임 김총영사 "보스톤은 제 2의 고향 같았다"

김용현 총영사, 팬데믹으로 조용한 이임
미국사회와의 교류와 차세대 한인사회에 관심
팬데믹 이전까지 매일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김 부가 구성됐던 2017년의 12월 29일, 한해가 총영사의 부임은 특이했다. 탄핵으로 새정

다. 부임 다음날 강연도 이채로웠다. 그의 이 임도 코로나바이러스란 전례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 총영사의 전임은 최장수 보스톤 총영사이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엄 총영사였다. 그는 이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부임한 듯했다. 실제로도 부



FALL BACK

11월 1일 일요일에는 서머타임이 종료된다. 시계를 한시간 뒤로 돌려놓으면 된다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 종료

11월 1일 서머타임 종료, 긴 밤과 겨울의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11월 첫째주 일요일인 1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새벽 2시는 새벽 1시 한시간 전으로 바뀐다.

서머타임의 종료는 본격적인 미 동부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올해는 서머타임 해제 전 첫눈을 맞이하게 되며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 예보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해가 이른 시간에 저물어 밤이 더 길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야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아일린 박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한인회 고문단 회의 통해 선관위원 7인 추천

11월 3째주 일요일 차기 한인회장 선거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한동안 한인회장 출마자가 없어 수년간 활동을 멈췄던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장우석 한인회장 후임을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우석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한인회 고문단은 10월 23일 고문단 회의를 갖고 김경원, 김영기, 안병학, 조영태, 박종권, 장홍수, 강성윤 등 7인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하였고, 한인회 이사회는 28일 오전 선관위원 7인을 이메일 검토를 통해 의결했다.

향후 선관위는 본격적인 발족 및 선관위원장을 선출한 후 한인회장 후보자 모집공고 및 선거관련 활동을 시작한다.

한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 41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한인회장 선거는 11월 3째주 일요일(15일)에 진행되며 후보자 모집 공고는 차후 진행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원장 선출 및 발족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 2주만에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우석 회장은 “회칙에 의거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매 2년마다 선

거를 통해 차기 회장이 선출 된다”며 “다음 주에 선관위원장이 확정되면 그 때 현재의 상황이 부득이함을 전제로 선거일과 선거 방식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일단은 회칙에 맞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차후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만 쉬울 것 같아 이렇게 진행한다” 고 말했다.

한인회칙에 따르면 한인회장 모집공고는 최소한 4주 전에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공고 후 최소 2주간 후보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협회 차세대 리더십 심포지움 개최

신임 양미아회장, 샘 현 사무총장 체재 첫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차세대 리더십 심포지움(YLS)"을 개최한다.

시민협회가 차세대 리더십을 개발하고 코리안어메리칸으로서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이 심포지움은 올해로 8회를 맞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면 심포지움이 아닌 온라인 줌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작가이자 교육가인 스테파니 한, 조세핀 김 하버드 교수, 영 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연사로 참여해 진행된다. 양미아 신임회장이 취임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도 하다.

양 신임회장 체제의 시민협회는 사무총장에 샘 현 전 로버트 들리오 MA 하원의장 보좌관을 임명하는 한편 여호수아 리 커뮤니티 케이션 디렉터, 소피아 박 프로그



램 디렉터 등 영입해 새로운 체제를 갖췄다. 본격적인 2세대 조직으로 탈바꿈해 차세대를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협회는 올해들어 팬데믹 이후 4월의 정치인턴모금만찬과

8월의 시민권취득 워크숍을 취소하며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가 신청 링크: Rb.gy/nqfbs5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후반을 향하는 <뉴 뮤직 심포지엄>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음악 행사인 <뉴 뮤직 심포지엄>이 새로운 경험과 소통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순조롭게 후반을 향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과 연주를 소개하고 청중과 서로 소통하는 이 행사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의 음악가 및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지난 3주 동안 세 번의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하였다.

첫 날인 10월 10일에는 디트로이트의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전자음악을 가르치는 박주원 교수가 순서를 맡았다. 그는 작곡가 이면서 연주자이고 또한 컴퓨터를 통해 음향을 설계하는 악기 디자이너라고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고, 작품 <Dubious Toppings(2019)>, <ISJS 이심전심(2020)>을 포함한 몇 개의 동영상과 프로그래밍 스크린을 통해 그의 작품과 음악 제작과정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날인 10월 17일에는 UC 버클리 작곡과의 안진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그는

<가야금 에튀드(2007)>를 시작으로 소규모 기악 합주곡 <ADGC(2010)>와 미국 합창단을 위해 쓴 <강원도 아리랑(2016)>, 피아노 사중주 곡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생 시절에 선생님의 지적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직접 악기의 연주 기법을 습득하며 작곡을 하게 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날인 10월 24일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피아니스트 장지혜 씨가 진은숙, 나효신, 이은영 등 한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이들의 곡에 존재하는 한국적인 요소에 대해 설명하였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음악가들이 어떻게 외국의 영향과 한국 문화를 융합하여 창작의 과정을 밟는가를 이야기했다. 이날 참석했던 예술협회의 정정욱 이사장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무척 놀라웠으며 한국 고유의 음악적 요소를 현대음악을 통해 듣는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31일에는 하와이 대학교의 도널드 위맥 교수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그는 동서양 문화를 융합한 작품 스타일로 한인 음악가들 특히 국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작곡가이다. 그리고 11월 7일



(좌측부터) 도널드 위맥(하와이 대학교, 작곡가), 서주리(프린스턴 대학교, 피아니스트/작곡가), 이윤지(버클리 음대, 작곡가)



에는 보스톤 버클리 음악대학의 이윤지 교수가, 마지막 날인 11월 14일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서주리 교수가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요즘 시대에 만들어지고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의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예술협회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뉴 뮤직 심포지엄>

진행: 김택수(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작

곡가)

10월 31일: 도널드 위맥(하와이 대학교, 작곡가)

11월 7일: 이윤지(보스톤, 버클리 음대, 작곡가)

11월 14일: 서주리(프린스턴 대학교, 피아니스트/작곡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8시 30분(동부시간)

줌(Zoom) 링크 신청 및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추석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9/4(금) ~ 10/4(일)



요즘이니까
면역력
추석이니까
정관장

요즘처럼 면역력이 소중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처럼 정관장이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안내

10:30am - 6pm

문자 : 312-493-6677

이메일 : kgcboston@gmail.com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3+1
자녀제품 1박스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 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베이커, 코로나바이러스 폭증의 원인은 30대 이하 젊은층

10월 전체 확진자 54%가 30대 이하 감염자들의 절반 정도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잠이 감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폭증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상당부분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밝혔다. 또 그는 주민들의 비협조로 인해 주정부의 감염경로 추적에 애로를 겪고 있음을 시인했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실내 하키 게임으로 인해 무려 110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30대 이하에서 300여건의 최근 감염이 발생했다. 주지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30대 이하의 감염율이 전체 29%에 불과했으나 10월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제시했다.

그동안 주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경로 등에 대해 투명한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 왔으나 최근 바이러스 증가로 인해 요구가 빗발치자 27일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주지사는 이번주 29일 목요일 주간리포트부터 새로운 집단 발병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더스 장관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신규 감염 케이스가 너싱홈, 대학,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예로 26일 발생한 1,216명의 신규확진자 중 역학조사를 통해 25 감염이

너싱홈, 25 감염이 대학 그리고 34 감염이 종교 시설을 통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36케이스는 소셜 클럽 등 집단 감염을 통해서 발생했으며 538건은 보스톤 등 19고위험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나머지 550 감염건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잠이 전염으로 주정부의 역학 추적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매리로우 서더스 보건장관은 지난 여름 바이러스가 잠잠해졌을 때 해고했던 역학조사관들을 재고용해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들의 비협조와 심지어 역학조사를 방해해서 역학조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키게임과 관련해 발생한 감염 추적 조사에서 일부 가정들은 조사를 거부했으며 하키 감독들은 선수와 부모들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이 확산되자 주정부는 지난 주 주내 모든 실내 아이스링크를 2주간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28일 1,137명의 신규환자가



베이커 주지사는 최근 폭증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상당부분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발생, 5일 연속 1천명 이상의 감염을 기록했으며, 누적확진자가 처음으로 15만 선을 넘은 15만 49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사망자도 36명으로 누적망자는 9천700명이었다. 특히 총 진단 검사수당 7일 평균 양성확진율은 1.8%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베이커 주지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이번 할로윈 및 뽕스기빙 연휴에 대규모 파티를 개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이 같은 비공식 모임이 가장 강력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경로라 말했

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그는 “야외 트릭오트리팅(trick or treating)은 실내에 모여서 장시간 동안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하는 실내 모임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방역수칙을 어기는 주민들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적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비즈니스의 문을 닫게 하고 사람들을 실업상태에 놓이게 만든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장터

SEOUL JANGTEO

서울 유명호텔의 중화요리 Chef 를
초빙하여 뛰어난 맛으로 보답합니다.

깊은맛의 국밥은
오랜 향수를 달래줍니다.

대표메뉴

- 순대국밥
- 돼지고국밥
- 소고기국밥

- 짜장면/짬뽕
- 탕수육/깐풍기
- 양장피/팔보채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구) 북경 in Allston



파리바게트 퀸지에 매사추세츠 2호점 오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저지에 미본사를 둔 파리바게트가 매사추세츠 2호점을 퀸지(Quincy, MA)에 오픈한다고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이 23일 보도했다.

미국내 82개점을 둔 파리바게트는 케임브리지 H마트에 1호점을 개설해 각광을 받아왔다. 보스톤 남쪽에 위치한 퀸지의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파리바게트측은 성명서를 통해 “매사추세츠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파리바게트는 계속적으로 미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고 밝히고 “가장 강력한 프랜차이즈 매력은 강력

한 연매출, 독점적인 레시피, 포용적인 리더십팀” 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트는 미국내에서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오레곤 포틀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랠리, LA, 뉴욕 등지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개장할 계획이다. 현재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저지, 네바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에 매장이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1988년 허영인 회장이 창업했다. 전세계 4천여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 3천개의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주 의회, 주당 \$100미만 실업급여자에 \$1,800 지급

트럼프 주 \$300 행정명령 때 제외됐던 실업자들에게 지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실업급여 수령액이 \$100미만인 저소득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가급여혜택 주당 \$300을 받지 못했던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주의회가 통과시켰다. 베이커 주지사는 바로 이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실업자들에게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6주동안 주당 \$300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었다. 주연방재난지원금을 전용해 지급한 이 실업추가급여 혜택은 최소 주당 \$100의 실업급여를 받는 실

업자들에게만 지급됐었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내에서는 69만 5천명이 총 13억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수령했었다.

연방 상원의 패트리샤 켈런 상원의 입법상정으로 새롭게 통과된 법안은 당시 \$100미만의 실업급여를 받아 당시에 제외됐었던 실업급여 수령자들에게도 총 \$1800씩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약 1만 7천명의 실업급여 수령자들이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이임 김총영사 "보스톤은 제 2의 고향 같았다"

▶▶1면에 이어서

답이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의 첫 공관장 부임지였으니 그도 그럴 것이다.

몇마디 나누면 누구나 편하게 만드는 엄 총영사와 달리 김총영사는 특유의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다. 김 총영사의 운전을 겸임했던 한 전임 보좌관은 혀를 내둘렀다. 매일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페이스북에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올렸다.

특히 미국 유학 경험을 가진 김 총영사는 미국사회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2019년 개천절 때 18분에 걸친 영어연설을 두고 한 미 외교관은 극찬을 하기도 했다. 그의 미국 사회와의 폭넓은 교류는 한류의 미국 진출과 더불어 필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다.

특이한 인연이 이어졌듯이 김 총영사의 재직 때는 굵직한 일도 많았다. 대한항공의 보스톤 직항 취항, 제약회사들의 보스톤 진출, 공식이던 한인회장 선출 등이 이뤄졌다. 호사다마, 그러나 임기 마지막은 코로나바 이러스로 인해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기도 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첫 공관장 근무지였던 보스톤을 “제 2의 고향” 같으며 진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달 개최된 한인단체장 줌 회의 때 단체장들은 모두 총영사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신세준 버몬트 한인회장은 감사패를 추진하자고 제안기도 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임하는 총영사와 이임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총영사가 하고자 했던 일들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들을 수 있고 한인들도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10월 27일 오후 뉴튼에 위치한 보스톤 총영사관을 찾았다. 인터뷰에는 이현우 부총영사가 배석했다.

▶2017년 12월 29일 부임하셔서 3년여 기간을 보스톤에서 보내셨다. 임기를 마감하는 소회를 듣고 싶다.

보스톤이 문화 역사의 요람이고 미국 지식의 중심이다. 돌이켜 보면 바이오테크, AI, 이노베이션, 첨단 과학 기술, 이런 보스톤에서 3년 가까이 한인들과 생활하고 일했다는 것은 기쁨, 보람, 특권이자 영광이다. 3년간 큰 과오 없이 잘 떠날 수 있어서 기쁘다. 한인사회의 사랑과 환영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난다. 좋은 곳을 떠나서 아쉬움도 크다. 3년차에 코비드란 뜻하지 않는 팬데믹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임 리셉션 정중함 인사 없이 불가피하게 대면인사 못드리고 떠나게 돼서 송구하다.

▶임기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이었나?

초임 공관장으로 의욕적으로 코리아워크를 시도해 봤다. 한인사회와 같이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무래도 2018년 첫해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US바이오 행사가 개최되어서 큰 환영 리셉션을 개최했다. 보스톤과 한국, 보스톤 한인 과학자들과 한국의 바이오 분야가 접목되도록 그런 일을 했다. 그 이후로도 한국 제약회사들이 많이 진출하도록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달성하게 돼 기억이 남고 보람이 된다.

보스톤 인천 직항로 개설도 그렇다. 전임자들께서 노력하셨지만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직항로가 개설로 한국과 보스톤의 경제 교류의 기폭제가 됐다. 직항로 개설 당시 2019년 4월 12일 취항식에 참가한 것, 그전에 선상 파티도 기억에 남는다.

한국문화가 선풍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야에서 공공외교 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수요가 늘고 있던 추세와 맞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했던 것 그리고 지역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첫 신년사에서 “한인동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총영사관이 될 것” 이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이뤘고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한인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었다. 한인 경제 자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보스톤의 강점인 바이오 테크, 첨단 과학,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연결을 추진해서 국제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연계가 깊어질 수록 한국 한인사회의 활성화가 된다고 봤다.

또한, 엄성준, 박강호 총영사 등 전임 총영사들의 민원 서비스 노력을 계승해 총영사관 문턱을 낮추는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게 평가받아서 격려가 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관들도 어려움이 있었다. 문을 닫고 예약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지만 보스톤은 시간을 그대로 하면서 내부적인 시간을 줄인다든지 민원 서비스를 계속해왔다.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총영사 중에서는 가장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는 총영사이셨다.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이유가 있는지?

정부의 지침과 개인적인 선호 두가지 측면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외교가 국민의 일상화 동떨어진 점이 있는데 국민에게 잘 보고하고 국민외교 장려하는 의미에서 페이스북을 권장하고 있다. 또 한인사회에서 총영사가 같이 호흡하려면 공관이 하는 일이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활동에 대해 여러 분들이 과거와 다른 총영사로 평가하셨다. 페이스북에 좋은 정보도 올리고 동포단체와 쌍방향으로 동향으로 보고 일하는데 도움이 됐다.




팬데믹으로 조용한 이임을 하는 김용현 총영사

▶총영사가 보고 느끼셨던 보스톤 한인사회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보스톤 한인사회는 다른 데 보다 독특하다 볼 수 있다. 전문가 분들이 바이오사이언티스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이민 역사들도 유학생들도 교수, 의학적 분들이 많아서 교육 수준이 높은 수준의 한인사회다. 주류사회에서도 각각 잘 정착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한인사회에 규모는 작지만 개개인들의 전문성, 성공 주류사회 진출 면에서 뛰어난 한인사회에 높은 수준의 한인들과 교류해서 좋았다. 전반적으로 지식인들이 많아 한인들 포함해 전문가들과 면담하는 것이 좋았다.

▶가장 공들여 추진했 ▶▶7면으로 계속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하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자료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6면에 이어서

던 사업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쉬운 것은 팬데믹 상황으로 지난 1-2년간 다져왔던 네트워크와 사업들을 바탕으로 한인사회와 함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한인 2세대 미래의 한인사회에 구성원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협회의 활동은 중요하다. 금년 초에 시민협회 이경해 회장님이 아프셔서 마음이 아프다. 시민협회 샘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 동북부 및 전역의 차세대들과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런 동력이 떨어졌다.

특히 전문성이 많고 뛰어난 차세대가 많다. 차세대를 포용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쉬움 점이다. 한인 입양아들도 포함된다. 마리아 로빈슨 하원의원 등을 비롯해 입양아 분들을 좀더 많이 포용해서 나갔으면 했다.

또 진출한 제약회사들도 모멘텀이 붙어서 지난 7월, 10개 제약회사들이 케임브리지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에 공동입주해서 발판을 마련하려 적극 추진했는데 연기가 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되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제약의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 모멘텀이 약화된 것이 아쉬움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세상이 반 정도는 정지된 느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총영사관의 활동도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총영사관에 끼친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알고 싶다.

코비드가 제약회사에 기회다. 우리나라가 방역 관련해서 세계 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코비드 초기부터 한국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고, 과학분야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해서 어떤 회사들은

더 바쁘다. 한국에서 방역을 잘해서, 빌게이츠도 백신 개발 지원도 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더 돋보이게 됨에 따라 보스톤의 중심 산업이 바이오 전방이 밝아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팬데믹으로 한인들과 한인업체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사실 총영사관의 손길이 닿기 가장 어려운 곳들이 스몰비즈니스인 것 같다. 총영사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 들도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다. 연방정부, 주정부의 소상공인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그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왔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경제인들 제약분야 2차레 정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어려운 상황을 파악했다.

모국 정부에서 구제할 수 없지만 모국정부에서도 생필품 지원, 마스크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한인 식당의 경우 한식당 리스트를 동포사회에 알리면서 테이크 아웃 활용을 많이 하지는 캠페인을 했었다. 주정부 정책을 공관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올려 알리고자 했다. 상황이 좋아져야 회복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마지막 인사를 남겨달라.

다시 한번 3년 기간동안 저와 집사람, 가족에게 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비드 상황에서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잘 극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인사회의 위상을 어떻게 하면 미국사회에 드높일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 대니얼 고 하원 진출이 좌절된 것이 아쉽다. 주류사회,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뛰어난 분들이 힘을 모아 협력해가면 좋겠다. 후임 총영사에게도 그런 점을 당부하고 총영사관에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editor@bostonkorea.com



피치버그에 위치한 교회 크로스로드 커뮤니티 처치(Crossroads Community Church)에서 28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했다

피치버그 한 미국 교회서 28명 코로나 집단발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피치버그에 위치한 교회 크로스로드 커뮤니티 처치(Crossroads Community Church)에서 28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집단 발병 사태가 발생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까지의 교회 예배를 진행해 10월 26일까지 총 28명이 감염됐다고 피치버그시 보건소 스티븐 커리 소장이 밝혔다.

커리 국장은 보스톤글로브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현재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 신도들과 관련 가족들에게 감염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고 밝혔다.

크로스로드처치 측은 21일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내 급격한 코로나바이러스

증가로 인해 교회 구성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 주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프거나 감기증상을 느끼는 경우 집에 머물러 진단검사를 받으세요. 교회 개선을 위해 10/25일 대면예배는 취소합니다." 라고만 밝혔으며 따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공지는 없었다

주정부는 최근 크로스로드처치가 교회 연수회를 갖는 등 주방역수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진 사진을 보면 교회 예배, 세례식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2021년 보스턴마라톤이 2020년에 이어 4월 대회가 취소됐으며 최소한 가을로 연기된다. 사진은 2019년 보스턴마라톤 대회 모습

2021년 보스턴마라톤 가을로 연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1년 보스턴마라톤 4월 대회가 최소한 가을로 연기된다.

보스턴마라톤을 주관하는 보스턴 체육협회(BAA)는 28일 4월 셋째 주 월요일 패트리어츠데이에 열린 보스턴마라톤을 최소한 가을까지 연기하며 관계처와 의논해 가능한 날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BAA 탐 그릭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6개월이 채 남지 않는 상태에서 매사추세츠 경제 재개 4단계에야 허용되는 보스턴마라톤을 내년 4월 주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대

회 개최를 가을로 연기함으로써 대회 참가자들 및 후원자들에게 실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5월 BAA는 124년만에 처음으로 취소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실제 대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1만5천972명이 참가해 자신들이 코스를 완주하는 “가상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BAA는 2021년 대회접수를 연기하고 2021년 대회준비와 관련된 전담팀을 만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참가 선수들이 자격이 되는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릭 대표는 “보스턴마라톤이 내년 가을에는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이지만 앞으로 차츰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보스턴마라톤뿐만 아니라 뉴욕마라톤, 베를린, 그리고 시카고 마라톤도 모두 취소됐다. 런던마라톤은 10월로 연기했지만 엘리트 선수들만으로 대회를 치렀다.

hsb@bostonkorea.com

벨몬트서 빈집털이 증가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비교적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벨몬트에서 최근들어 빈집털이 사건이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몬트 경찰은 최근들어 이같은 사건이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빈집털이는 늦은 오후 또는 초저녁에 발생하며 대부분의 침입자들이 뒷문을 통

해 침입하며 보석이나 전자제품 등을 훔쳐간다.

최근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은 대부분이 윈브룩초등학교(Winn Brook Elementary School)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귀중품을 옷장

이나 서랍에 두지 말고 안전금고에 둘 것을 권장했다. 또한 집앞에 차를 주차하고 거리를 따라 내려가거나 길 모서리로 가는 사람을 주시해야 하며 낯선 사람이 집이나 이웃집의 뒷뜰에 들어왔을 때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전화는 617-993-2550이다.

hsb@bostonkorea.com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 종료

▶▶1면에 이어서

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실내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보스턴을 비롯한 미국 동부의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난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과 서울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바뀐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4시간, 서부보다는 17시간 빠르게 된다.

대부분의 컴퓨터 기기는 자동

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어 시간이 바뀌어 과거와 같은 혼동은 비교적 줄었다. 직접 바꿔주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오래된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10월 30일 밤에 시계를 한시간 뒤로 돌려 놓으면 착오를 막을 수 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는 경우 ‘Spring forward Fall back’으로 기억하면 쉽다.

hsb@bostonkorea.com

금요일을 시즌 이른 첫눈 가능성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열대성 폭풍 제타가 북상하면서 매사추세츠 주에 이른 첫눈을 뿌릴 가능성을 주고 있다. 첫눈의 양은 제타의 힘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매사추세츠 중서부인 우스터와 버크셔 카운티에 집중될 것이지만 나머지 매사추세츠 주도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아침 사이 일부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눈은 폭우로 시작해서 무거운 습설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밤새 눈이 집중될 예정이다. 따라서 떨어지는 나뭇가지로 인한 단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금요일 오후에 보스턴에서도 눈발이 훑날릴 수 있다.

아쿠웨더 수석 기상학자 마이크 돌은 “이번 눈은 오대호에서

형성된 차가운 고기압이 목요일부터 금요일에 거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제타와 만나 눈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10월 첫눈은 드물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할로윈인 31일은 맑겠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은 길고 추울 것으로 예측했다.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허리통증 굿바이~ 스트레칭 BEST 5

“허리 통증..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두실건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개인레슨을 받으러 요가원을 찾아오시는 분 중, 허리통증으로 습관처럼 진통제를 복용했던 한 남성분은 그동안 일하느라 몸 돌볼 시간도, 운동할 여유도 없어 미루고 미루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둔감할 때가 많은데, 더 심한 통증으로 후에 더 큰 고생하지 않으려면 더 늦기전에 허리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허리통증 완화에 좋은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영상 중, 'BACK PAIN? 허리통증완화 요가' 따라해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두 동작 이외에도 더 많은 동작을 쉽게 배우고 따라하실 수 있을거예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배울 스트레칭은 Cow stretch + Child pose입니다.

STEP 1 : 테이블 자세에서 숨을 마시며 천천히 가슴을 앞으로 보내 열어줍니다.

STEP 2 :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발바닥을 향해, 가슴은 허벅지 앞을 향해 내려줍니다.

POINT! :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호흡과 함께 몸을 앞뒤로 움직여주세요.

STEP 3 : 3-5회 반복후, 잠시 아기자세에서 휴식합니다.

이때 호흡을 허리와 등으로 보낸다고 상상하며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두번째는 Lizard Pose입니다.
STEP 1 : 테이블 자세에서 왼발을 앞으로 보내 런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발은 두 손사

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STEP 2 : 천천히 그발을 왼쪽으로 보낸 후, 왼손을 천정으로 들어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POINT! : 이때 엉덩이는 지국이 바닥을 향해 내려줍니다.



STEP 3 : 왼손을 등뒤로 가져간후 조금더 깊이 갈 수 있다면 왼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고, 왼무릎을 접어 손으로 발 혹은 발목을 잡아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가

지만 허벅지 앞면을 스트레칭해주세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BACK PAIN 영상을 참고해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영상 밑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해드릴게요. 혹시 좀더 배우고 싶은 요가 자세가 있다면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운동을 하러가기 힘들거나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없으신 분들 중, 온라인 1: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요가원 이메일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직접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하루의 일상에서의 미를 찾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 꾸준히 매일 무언가에 열정을 쏟고 있는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나마스떼!**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매사추세츠 6일 연속 신규확진자 1천명 넘어

29일 확진자 1,243명, 사망 21명
일부 전문가 주 경제 재개 계획 축소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가 29일 1,243명이 발생, 6일 연속 1천명이 넘는 감염세가 지속됐다.

이처럼 최근들어 감염세가 급증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주정부의 경제 재개 플랜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 보건부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누적확진자는 14만8천336명으로 15만 환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사망자는 9천657명으로 집계됐다.

보스톤 메디컬센터의 특수 병리학과 학과장 나히드 배텔리아 박사는 지난 주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감염 확산의

원인이 주정부의 경제 재개, 대학생들의 캠퍼스 대면수업, 차가운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한 바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6일 총 2만 86명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누적진단검사자 수는 2백 65만에 달했다. 한명이 복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것을 포함한 누적진단검사수는 5백72만건에 달했다.

7일 평균 진단검사수 당 양성확진율을 1.6%였다. 진단검사자 당 양성확진율은 6.3%로 부쩍 증가했다. 3일 평균 입원환자수는 546명으로 전날 553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비상 상황으로 운영 중인 병원은 3곳이었고 3일 평균 사망자 수는 15명이었다.

hsb@bostonkorea.com

동북부주들 매사추세츠 방문자 제한 시작

매사추세츠 확진자 늘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커네티컷과 뉴저지주는 이번 주부터 매사추세츠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 또는 음성 판정 증명을 제출하도록 했다.

비록 뉴욕주는 매사추세츠주를 이 같은 자가격리 의무화 주에 편입시키지는 않았지만 뉴욕 주 주민들에게 매사추세츠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커네티컷 주는 그동안 매사추세

츠주를 여행 제한주에 편입시키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커네티컷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여행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커네티컷의 핵심 근로자로 일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4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여전히 여행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고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커네티컷 주는 일일 양성확진율이 10% 이상이거나 10만명당 일일

10명 이상 감염인 주들은 여행 제한주에 포함시키는데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15.1명을 기록하고 있다. 커네티컷은 로드아일랜드 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한편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와 뉴욕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여행금지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며 매사추세츠주의 삽입을 면제했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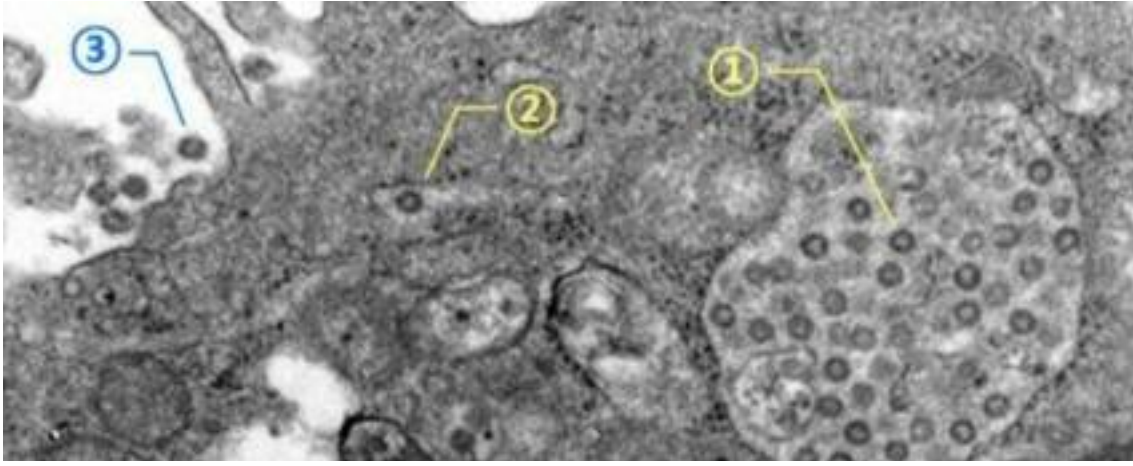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코로나바이러스 완치 후 만성 자가면역 질환 이행 가능성

뉴욕타임스, 완치자에서 자기항체 발견...체세포 공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환자에서 바이러스가 아닌 체세포를 공격하는 자기항체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NYT는 코로나19도 잠재적으로 루푸스나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만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징후라고 해설했다.

미국 에모리대학 면역학자 매슈 우드러프 박사가 주도한 이 연구는 의학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MedRxiv'에 23일 게시됐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우리 몸의 B 면역세포가 이를 감지하고 항체를 형성하는 게 정상적 면역체계지만 종종 B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로 죽은 체세포의 DNA 조각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 자기항체를 형성해 자가면

역 질환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인 코로나19 역시 환자의 몸 안에서 이런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진은 이달 초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체내에서 오작동하는 B 면역세포를 발견해 이번 연구를 진척했다.

연구진은 자가면역 병력이 없는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 5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자기항체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드러프 박사는 "이들 환자가 단순히 자가면역과 유사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기보다 이런 면역반응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반응성이기도 하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NYT는 이런 이상 면역 반응으로 중증 코로나19가 더 악화할 수 있고 조기에 완치된 환자가 왜 긴 후유증을 겪는지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사추세츠 대학 루푸스 전문 면역학자 앤 마사크-로스테인 박사는 "코로나19 환자에서 발견되는 혈액 응고 문제의 일부가 이런 면역 반응 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자기항체가 오래가면 코로나19 완치자는 평생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또 자기항체 검사로 이를 보유한 코로나19 환자를 가려낸 뒤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 류머티즘 관절염을 완화하는 치료법을 응용할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우드러프 박사는 "기존 자가면역 질환에 쓰는 더 강한 약을 자기항체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hskang@yna.co.kr

미 경제 GDP 급등 트럼프 "역사상 최고치"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 상무부는 이날 미국 GDP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분기에 연율 기준으로 -31.4%로 폭락했다가 3분기에는 33.1%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 하락한 수준이라 코로나19에서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가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3분기 성장률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고 좋은 것"이라며 "내년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바이든 후보를 겨냥해 "졸린 조'(Sleepy Joe)와 그가 제안한 기록적인 증세는 이 모두를 끝장낼 것"이라며 "이 훌륭한 GDP 수치가 11월 3일 (대선일) 전에 나와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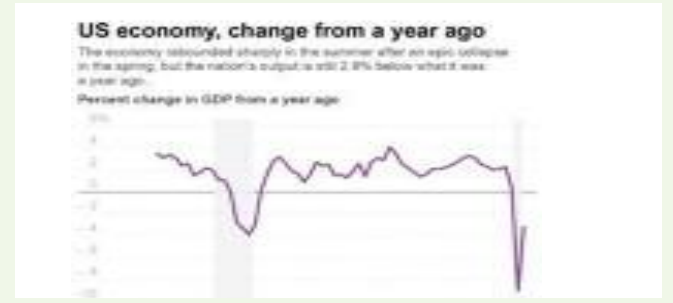
대선을 닷새 남겨둔 시점에 나온 GDP 집계치가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득표 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속내

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성명과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며 3분기 성장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실패로 인해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소득층이 어려워지지만 부유층 경제는 빠르게 반등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K'자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전진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분기 GDP가 증가했지만 (음식을 무료로 얻는) 푸드뱅크 방문자는 줄지 않았고 빈곤은 커졌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 이래 취임 때보다 더 적은 일자리를 남긴 첫 대통령의 궤도에 올랐다"고 공격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 최고 기록은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의 69만5천건이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6만건까지 늘어난 바 있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신신 가을 이벤트

오뚜기 설령탕 혹은 사골곰탕

1 FREE \$150.00 or more

2 FREE \$250.00

3 FREE \$350.00 or more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보스톤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 일평균 코로나환자 연일 새 기록 41개주서 환자 10% 이상 증가세

28일 세번째로 많은 신규환자 나와...파우치 소장 "전국적으로 마스크 의무화할 때"

(워싱턴=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28일(현지시간)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CNN 방송은 미국의 최근 1주일 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7만4천여명으로 집계되며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28일의 하루 신규 환자도 7만8천

981명으로 지난 23, 24일의 8만3천731명, 8만3천70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나왔다. 신규 사망자도 994명으로 1천명에 바짝 다가섰다.
또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집계 결과 28일의 신규 환자가 8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또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서 최근 1주일간의 신규 환자가 그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CNN은 전했다.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명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전문가

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스콧 고틀립 전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아마도 앞으로 몇 주 내에 언젠가 우리는 (하루) 10만명 감염을 넘길 것"이라며 "만약 모든 주가 제때 보고한다면 이번 주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틀립 전 국장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확산세가 진정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변화하기 전에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데이터가 감소하기 전에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둔화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과거의 바이러스 급등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말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치솟고 있다.
인디애나·위스콘신주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캔자스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실(ICU) 입실 환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톰 배럿 시장은 이날 CNN에 나와 중환자실에서의 포화 상태가 되고 입원 환자는 한 달 새 2배로 늘면서 주가 곤경에 빠졌다고 말했다.
테네시주에서도 입원 환자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매일 새 기록을 쓰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

염병연구소 소장은 전날 CNBC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마스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마스크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었던 종전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정부의 관여 없이도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기대했다고 말했고, 이에 진행자가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한 뒤 전국적인 마스크 의무화를 할 때냐고 묻자 파우치 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나는 시장과 주지사들이 지역별로 그걸 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889만7천402명, 사망자 수를 22만8천143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sisyphe@yna.co.kr

미 대선 막판 여론조사 바이든 54%, 트럼프 42%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여전히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NN 방송은 지난 23~26일 전국 성인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3.6%)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선거 막판 지지율 바이든 54% vs 트럼프 42%...20여 년 내 최대 격차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 바이든은 54%의 지지율로 트럼프(42%)를 12%포인트 차로 리드했다.
CNN은 "미국 대선이 선거인단을 뽑는 주 단위 선거 결과에 좌우되겠지만, 바이든이 확보한 지지율 격차는 과거 20여 년간 나왔던 어떤 선거 막판 지지율 격차보다 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열세인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선거 당일 투표율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긴장 감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노현동 자택, 측근들 속속 방문

이재오 · 류우익 · 맹형규 · 정진석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 발걸음 취재진 장사진...유튜버 등 7시간 넘게 자택 앞 시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대법원 선고 후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 등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속속 방문했다.

선고 직후인 10시 55분께에는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자택으로 향하기 직전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여실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1시 15분께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걸어서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갔다.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들렀다가 2시 30분께 차를 몰고 자택을 나섰다.

이어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서규용 전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자택을 찾았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방문했다.

맹 전 장관은 오후 4시 20분께 자

택을 나서며 "(이 전 대통령은) 잘 계신다. 위로해 줬다"며 "전직 장관, 수석, 특보 이런 분들과 국회의원들 30여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사 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 13년 동안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된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내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 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이명박 전 대통령 노현동 자택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나라 미래 걱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



이명박 전 대통령

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acui721@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30th - NOV. 5th, 2020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Bushell Spinach 부셀 시금치 2\$3 BUN./FOR</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PREMIUM QUALITY/LB \$1.49</p>	<p>Kabocha 단호박 LB \$0.79</p>	<p>Oriental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99</p>	<p>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p>
<p>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Packed Garlic 팩마늘 2\$3 PKG./FOR 5 CNT/ PKG.</p>	<p>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2\$5 PKG./FOR 10.58 OZ. /PKG.</p>	<p>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7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3종 SOFT/SILKEN/FIRM/14-16OZ \$1.29 PKG.</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eef Tenderloin 생 소안심 WHOLE PIECE/LB \$7.99</p>	<p>Fresh Pork Baby Back Rib 생 돼지 등갈비 WHOLE PIECE/LB \$4.99</p>
<p>Fresh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생 돼지목살 LB \$5.99</p>	<p>Fresh Whole Chicken 통닭 LB \$1.79</p>
<p>Frozen Sliced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불고기 LB \$5.99</p>	<p>Marinated Sliced Beef Ribeye for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Frozen White Shrimp 냉동 흰새우 26-30'S/LB \$6.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PARANHAE Smoked Dried Anchovy 파란해 훈연멸치 7 OZ./PKG. \$5.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HWAWOODANG Frozen Spicy Stir-Fry Small Octopus 화우당 냉동 낙지볶음 12.69 OZ./PKG. \$6.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TONGTONGBAY Frozen Salted Mackerel Fillet 통통배 냉동 The 맛있는 고등어 13 OZ./PKG. \$4.99</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p> <p>Frozen Panko Shrimp 냉동 판코 새우 2\$7 PKG./FOR 16-20'S (10 PCS/PKG.)</p>	<p>HOT SALE</p> <p>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6.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햅쌀 \$13.99 NEW CROP/ 15 LB</p>	<p>H MART SMART CARD ONLY</p> <p>HAIOREU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p>
<p>H MART SMART CARD ONLY</p> <p>THE HOUSE MANDU Dumpling 그 집 만두 왕교자 \$5.99 BEEF/PORK/ SHRIMP/KIMCHI 20-24 OZ.</p>	<p>H MART SMART CARD ONLY</p> <p>DONGSUH Maxim Coffee Mix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100 STICKS/PKG. \$12.99</p>

<p>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가가야끼 쌀 15 LB \$23.99</p>	<p>MIZKAN Oigatsuo Tsuyu Soup Base 미쯔칸 짜유소스 16 FL.OZ. \$3.99</p>	<p>SHIRAKIKU 100% Pure Sesame Oil 시라키쿠 참기름 56 FL.OZ. \$9.99</p>	<p>CHUNGJUNGONE Sunchang Doenjang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7.99 SOY BEAN PASTE/ 6.17 LB</p>	<p>GO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5.5 LB \$3.99</p>
<p>YOODONG Canned Bai Top Shell 유동 굴뱅이 14.1 OZ. \$6.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OZ. X 6 EA./BOX \$9.99</p>	<p>PULMUONE Breaded Mozzarella & Fish Cake on a Stick 풀무원 모짜렐라 핫도그 14.1 OZ. (5 PCS/PKG.) \$6.99</p>	<p>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카라아게 치킨 12 OZ. \$4.99</p>	<p>CROWN Corn Chips 해태 콘칩 5.22 OZ. \$2.99</p>
<p>JOEUN Korean Style Popcorn 조은 돌아온 향긋이 5.99 OZ. 2\$3 EA./FOR</p>	<p>BOHAE Maewon Prime 보해 매원 프라이م PLUM EXTRACT CONCENTRATE/ 16.9 FL.OZ. \$7.99</p>	<p>PORORO Heart Pillow Cover+Cotton 보로로 하트베개 커버+솜 PINK/BLUE/GREEN/YELLOW/EA. \$12.99 30X70CM \$19.99</p>	<p>HELLO! Paint Mug Set 헬로! 페인트 2인 머그 세트 \$5.49 2 PCS/SET \$8.49</p>	<p>HELLO HOME Tumbler Mug 헬로홈 텀블러 머그 RED/NAVY \$7.99 450 mL</p>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천년의 김치 千年的味道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수잔 안
339.224.1512
susan@bostonpremierrealty.com

OUR AGENTS



이 제 봉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



애나 정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 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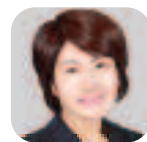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김 원 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 키 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Micki Choi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주 승 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 승 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레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트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영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영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연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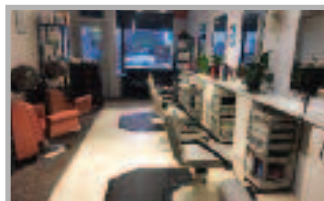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NEW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Asking \$40,000 Price Reduced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급매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sking \$320,000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히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영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영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서울시장 놓치면 대선 어렵다" 여당 공천 논란 정면돌파

보선 원인 제공에도 정권재창출 위해 공천 불가피 판단, 속전속결 절차 밟기로... "이낙연 개인에게는 대권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치'를 내세워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조기 공천 방침을 내놓은 것은 수도 서울의 상징성과 내후년 대선 일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재보선 공천에 대해 "늦지 않게 책임있게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지만, 29일 의원총회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함께 재보선 공천을 위한 전당원 투표 실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공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간 물밑에서 당 안팎의 여러 경로를 통해 공천 의견을

수렴했으며 고심 끝에 '책임정치' 관점에서 공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이 가진 정치·사회·경제적 상징성과 비중, 대선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재보선 1년 뒤 치러지는 대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당 중진 의원은 "후보를 내지 않으면 야당이 선거운동하며 돌아다닐 때 우리는 바라만 봐야 한다. 그럼 지역 조직이 사실상 고사하게 된다"며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재보선 공천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한 뒤 재보선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원 투표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다음주 당헌 개정을 완료한 뒤 선거일 150일 전(11월 8일)까지 설치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야 하는 중앙당 공식선거후보자 검증위를 곧바로 구성한다.

검증위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을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의 개인 정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이야

기가 나온다.

지난 8월 말 취임한 이 대표는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대선에 출마할 경우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 체제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이 이뤄지고, 대표직 사퇴 이후에도 이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재보선 결과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이 대표 몫이다. 서울에서 이기면 대선후보의 길을 활짝 열고, 패하면 정치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라 관측이 벌써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결국 서울시장 선거가 이 대표의 정치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24⁹⁹</div>	<p>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blue;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34⁹⁹</div>	<p>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39⁹⁹</div>
--	--	--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곧 만납니다. INKO

INKO°

최첨단 인쇄전자
FLEXIBLE ELECTRONICS 기술로
최적의 열효율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잉코 INKO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혁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 (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라모니아 보스톤
보스톤 뉴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래
사라 제럴드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 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1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J6ZdT>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공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골프 레슨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인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에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1위 등극"

‘10년 더 건강하게!’ 라는 바디프랜드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7편의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는 바디프랜드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유쾌한 모습과 같은 이미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디프랜드가 올 3·4분기 헬스케어 브랜드 중 1위, 대한민국 전체 브랜드 중 27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브랜드가치 평가기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올해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바디프랜드는 브랜드가치 평가모델지수(BSTI) 864.6점을 기록해 이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전년동기에 비해 8계단 상승한 것으로, 헬스케어 브랜드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다.

쿠팡(28위), 유튜브(33위), 트위터(50위), 넷플릭스(91위) 등 이른바 '핫'한 글로벌 브랜드보다 높은 순위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안마의자가 인기를 모으면서, 바디프랜드가 브랜드가치를 꾸준히 높이며 업계 최고의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이 회사측은 설명했다.

매년 바디프랜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3·4분기 기준 각 연도별 순위 비교 시 2016년 95위로 100대 브랜드에 첫 진입한 이후, 2017년 47위, 2018년 36위, 2019년 35위, 2020년 27



위로 순위가 높아졌다.

바디프랜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사가 추격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든다는 '오감초격차' 전략으로 기술, 디자인, 품질, 서비스, 고객만족 등 5가지 분야에서 차별성을 추구해왔다. 메디컬 연구개발(R&D)센터, 기술연구소, 디자인연구소 등 3대 R&D 조직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528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독보적인 마사지 기술과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업계 유일의 메디컬R&D센터에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분야별 전문의를 포함한 수십명의 전문 연구 인력이 마사지 프로그램과 건강 증진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을 꾸준히 개발 중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출시된 목 추간관(디스크)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 의료가기 등도 개발하여 동종업계 회사 제품과 큰 격차로 선두주자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해 안마의자를 '헬스케어 로봇'으로 진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XD마사지 모듈과 비대면 시대의 선물, 멘탈마사지, 집콕한 절기 대처법, 건강한 수면 생활을 위한 수면 모드 프로그램 등 바디프랜드만의 기술력과 건강 관리의 주요 포인트들을 매칭해 알찬 내용으로 꾸린 점도 돋보인다. 미동부지역에서는 안마의자 전

문 기술가가 운영하는 하이트론스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공급하며 5년간 full warranty 가능하다

한편 하이트론스에서는 바디프랜드 파라오 SII 를 48개월 무이자 가능하며 일시불 구매 시 LG 스타일러, 감치냉장고 120리터 물걸레 청소기를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10월말까지 한다.

문의: 하이트론스 201-941-0024
www.hitrons.com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톤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PRESENTS

THE 8TH ANNUAL

2020 YOUNG LEADERS SYMPOSIUM

GUEST SPEAKERS



DR. STEPHANIE HAN
AUTHOR, SPEAKER, AND EDUCATOR



DR. JOSEPHINE KIM
FACULTY AT HARVARD UNIVERSITY



YOUNG KIM
CONTENT CREATOR



[RB.GY/NQFBE5](https://rb.gy/nqfBE5)

NOVEMBER 14, 2020 | 2 PM | VIA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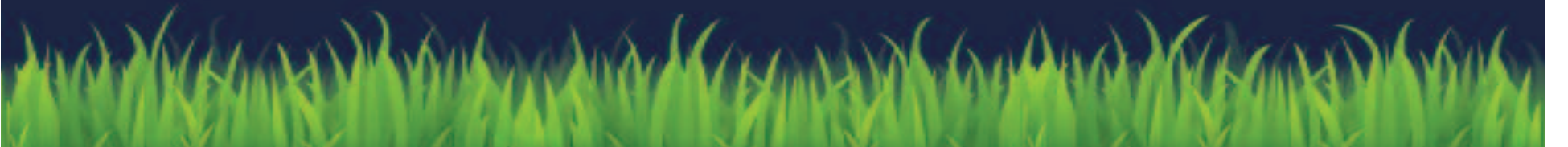
SCAN THE QR CODE OR VISIT THE LINK TO REGISTER

NE시민협회가 11월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8차에 해당하며, 시민협회는 매년 거행하는 차세대 리더십 개발과 한인-미국인 으로서 차세대에게 자긍심을 함양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시민협회는 4월의 정치인턴모금만찬과 8월의 시민권취득 워크샵을 부득이 취소하였으나, 이번 리더십 컨퍼런스는 3명의 주요 한인 리더를 초청하여 비대면 - 줌 화상을 통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www.kacl-ne.org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Flip

한인들에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므로, 내가 말하는 나아진다는건 미국 오신지도 세월이 흘렀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Equity Line이 늘어나면서 재산이 있다는 얘기가. 100세 시대인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 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을까 하면서 나에게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오

늘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Flip이다. Flip이란 말 그대로 확 뒤집는 것이다. Flip 즉 확 뒤집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다. Simply 정돈 정도 하는 거 바닥만 바꿨고 페인트 칠 정도 하는, remodeling 화장실 부엌 등등을 뜯어 고치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헐고 다시 다 짓는 것이다. 정돈 정도 하는 수준은 아무 허가가 필요

하지 않다. 부엌이나 화장실을 고치 때에는 plumbing을 건드리라 아니라에 따라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다. 헐고 다시 다 짓는 경우에는 General Contractor를 하여 하거나 집 주인이 Supervisor가 되어서 Sub contractor들을 하나하나 하여 해서 공사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얼마 정도 드

지금 현재 매매물이 없는 실정에 돈을 많이 남기기란 힘들 것이다. 오래전에 사 두신 물건이 아닌 이상... 하지만 난 Flip을 굉장히 권장한다. 나 같이 부동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contractor들을 알고 있고 누가 어느 일을 잘하는지 또 누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할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집이 다 완성 되었을 때에 성취감이란 말로 할수 없을 것이다.



나오"다. 같은 물건이라도 이 사회에서 다 다른 가격에 매매가 된다. 특히 요즘 Amazon에서 편안하게 살수도 있고 직접 가서 사면 좀 더 싸게 살수도 있다

Flip도 같은 공식이다. Home Depot 나 Lowes 에 직접 가서 재료를 사서 본인이 하거나 사람을 써서 하면 싸게 할수 있겠지만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건 좋은 물건을 사야 하듯이 좋은 공사를 해야 한다.

그다음 질문은 "다 고치면 얼마에 팔수 있어요"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1월 1일 - 11월 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철저한 확인이 필요</p> <p>●운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전: 뭔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합니다. 더 나은 조건이나 가격대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머리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포기해도 마음으로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 6일 길일, 2, 3일 주의.</p>	<p>소띠 정확하게 말해야</p> <p>●운수: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끌어들이는 사람이 도리어 일을 더디게 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과욕을 부리다가는 지금까지 이룬 것마저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애정: 무조건 참고 지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상대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 5일 길일, 1, 3일 주의.</p>	<p>범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p> <p>●운수: 주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도움 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금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도 잡게 되겠습니다. ●애정: 자식 같은 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있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 7일 길일, 1, 4일 주의.</p>
<p>토끼띠 하면 된다는 신념과</p> <p>●운수: 막힌 것 같고 답답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금전: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의욕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성취욕이 강해 집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좋은 조건의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애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4일 길일, 2, 5일 주의.</p>	<p>용띠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p> <p>●운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처세를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당장은 자신이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애정: 짜증나게 하고 다들 만만 한 일이 있더라도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큰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p>	<p>뱀띠 눈에 띄기 쉬운</p> <p>●운수: 방심이 금물입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때입니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어도 같이 다니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p>
<p>말띠 한 계단씩 차근차근</p> <p>●운수: 성공으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계단만 있다 생각하고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 길게 끌지 말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애정: 평소 때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 개나 중매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p>	<p>양띠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p> <p>●운수: 예감이나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웬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오는 일을 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금전: 망설이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애정: 오해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살다보면 종종 오해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7일 길일, 3, 6일 주의.</p>	<p>원숭이띠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p> <p>●운수: 집이나 사업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다면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니 실속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애정: 사랑의 계절에 춘삼월이 왔으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p>
<p>닭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p> <p>●운수: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용기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다가 손해만 부릅니다. ●애정: 가족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지만 가족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 6일 길일, 5, 7일 주의.</p>	<p>개띠 만족도가 높으니</p> <p>●운수: 전문가나 경험자와 상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만족도가 높으니 흐뭇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금전: 땀 흘려서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가져다줄게 됩니다. ●애정: 연애할 상대를 만나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어 갑니다. 잊혀져가던 설렘이나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7일 길일, 2, 6일 주의.</p>	<p>돼지띠 끈기가 있어야</p> <p>●운수: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 집니다.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금전: 코앞만 생각하면 적은 이득에 그치지만 길게 내다보고 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금전상태도 좋아지고 여러 면에서 호전이 됩니다. ●애정: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6일 길일, 1, 7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트와이스 새 앨범, 세계 32개국 아이튠즈 정상 휩쓸어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걸그룹 트와이스가 3년 만에 내놓은 정규앨범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이 세계 아이튠즈 차트를 지배하고 있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앨범은 무려 32개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트와이스 역대 앨범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1위에 오른 신기록이다.

한터차트와 가온차트의 실시간 순위에서 1위를 동시에 석권하는 등 국내 음반 차트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타이틀곡 '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 뮤직비디오는 공개한 지 하루 반 만에 3천200만 뷰를 기록했다. 일본 라인 뮤직 실시간 차트, 중국 QQ뮤직 급상승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며 '음원 파워' 역시 증명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낸 13장의 앨범이 모두 히트하게 된 트와이스는 소속사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현은 "이 모든 것은 모두 우리 팬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말 원스(트와이스 팬)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모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다. 컴백마다 좋은 무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와이스는 '13년 속히트'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사나는 타이틀곡 제목처럼 트와이스를 멈출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완벽함"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무대,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이 건 계속해서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며 열정을 보였다.
rambo@yna.co.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원조 혼성그룹' 코요태, 이효리 프로듀싱 신곡... '레트로 감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원조 혼성그룹' 코요태가 이효리가 프로듀싱한 레트로 댄스곡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KYT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코요태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 '삭제'를 발매한다.

'삭제'는 이효리의 '부캐'인 '린다G'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린다G는 이효리가 MBC TV '놀면 뭐하니?'로 결성된 혼성 프로젝트 그룹 '삭제'의 이름이다.

소속사는 "'삭제'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최고의 프로젝트 혼성그룹으로 복귀한 린다G가 동시대를 함께했던 동료 가수인 코요태에게 선물로 준 곡"이라고 소개했다.

헤어진 연인의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는 내용의 '삭제'는 기존 코요태 스타일인 마이너풍 하우스 댄스곡으로, 1990년대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긴다.

kimhyoj@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인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꽃꽃' 시

삶은 어쩌면 이리 단순한지도 모른다. 자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절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일 말이다. 자연을 보면 참으로 많이 배운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제 모양과 제 색깔로 꽃피우고 열매 맺고 제 역할을 다하고 돌아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지 않은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에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안절부절못한다. 느닷없는 불청객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도둑처럼 찾아왔다. 일상을 뺏기고 우울한 날의 연속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삶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 부모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시대를 요즘 아이

들은 살아간다. 한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중작업', '다중과업화'는 현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적절한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단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려버리는 것들이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좋으면 빨리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져 싫증 나면 생각할 시간 없이 빨리 헤어져 버리는 일 말이다. 물론, 각자의 삶에 있어 각자의 선택이며 정해진 정답은 없다.

삶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될 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엇인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을 때 나태주 시인의 '꽃꽃' 시를 깊은 호흡으로 읽어보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너도도 짧은 시 그러나 참으로 심오한 시, 깊은 생각과 호흡으로 만나야 하는 귀한 시편이다. 그렇다, 작은 꽃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일이 있는가. 그 작은 꽃꽃을 시간을 내어 오래도록 바라본 일이 있는가. 들꽃 들꽃도 이렇진대 사람

꽃이야 얼마나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가까이에 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도 쉽게 무심함으로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2017년 9월에 한국에서 '시와정신국제화센터' 오픈 행사가 있었다. 그 문학 행사에 참여했다가 나태주 시인을 뵈는 적이 있다. 작은 체구에 굽직한 선의 인상 특별히 서글서글한 눈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어른을 보니 젊은 글쟁이들이 환호성으로 반긴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참석한 문인들이 30여명이 되었으니 더욱이 뵈기 어려운 분이 아니던가 말이다. 옆집 아저씨 같으신 편안해 보이는 시인은 당신의 시집 하나씩을 미국에서 참석한 문인들에게 사인해서 선물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시편 하나를 골라 낭독해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참으로 편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시편이 아니던가. 특별함이란 이렇듯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이 아니던가. 다만, 그 평범함 속에서 소중함으로 받아들

이고 귀함으로 맞이하는 마음일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꽃꽃'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다. 꾸미지 않아 편안한 소박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작은 것들을 소홀히 대하기 쉽고 쉬이 지나치기 쉽지만, 작은 것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만날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까닭이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번쯤 다시 읽어 보고 가슴에 새기며 소중한 일상과 가까운 사람과 자연(들꽃과 들풀들)들을 생각하며 힘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주변의 텃밭이나 아산을 산책하며 흙내를 맡을 수 있다면 더 없을 축복일 것이다. 또한, 다른이의 영혼의 세계를 산책할 수 있는 시편들을 만날 수 있다면 함께 소통하며 간접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득, 나태주 시인의 '꽃꽃' 시가 생각났다. 그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꽃무릇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카톡으로 받았다. 붉게 무리 지은 꽃무릇 사진이었다. 한참을 들여다 볼적에 꽃들이 도도해 보였다. 강렬한 붉은 색과, 허리를 곧추 세운게 그러했던 거다. 그렇다고 건방지거나 거만해 보이지 않았다. 꽃이름은 낯설었는데, 향기는 없다고 했다.

꽃무릇너,
...
하늘빛 싸리꽃 너머
흔들리는 역새 춤을
불타는네 가슴에 안겨주라?
(박종영, 꽃무릇 중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자. 그녀는 자주 티비에 나온다. 권력서열 3위라 했으니 막강하다. 현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하는데, 피차 심한 언사도 주고 받았다. 대통령의 연설문도 보는 앞에서 찢었다.

그의 모습과 이름은 익히 들어 안다. 한국신문에 난 기사이다. 2019년 2월인가. 한국 국회의장이 정당대표들을 대동하고 그를 방문했다. 회담중 남북정상회담이 화제에 올랐던 모양이다. 그의 발언 내용이다. 그대로 옮긴다.

“펠로시 의장은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면서 1997년 하원 정보위 위원들과 방북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부터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펠로시 의장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대화 내용을 공개한바 있다." (중앙일보, 2019. 2.13)

그가 이어 말했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 직설적이고 단호한 말투가 인상적이다.

그가 상당한 미인인 걸 나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사진을 보면 은색 여우가 떠오른다. 오히려 호령하고 일갈하는 호랑이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한편 붉디 붉고 꽃꽂한 꽃무릇일 수도 있겠다. 그에 게서 꽃향기는 날 것인가?

펠로시 의장의 말에 따르면. 과연 우리 북한을 믿을 수 있겠다. 미국에선 곧 대통령 선거가 있다.

사진 설명) 그림은 알렉스 카츠의 작품을 모사했다. 사진을 볼적엔 숨이 턱 막히도록 인상적이었다. 도도함을 넘어 얼음처럼 차가울테니 찬바람이 이는듯 했다. 냉철함이다.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유희기 37:9)



Silver Fox
'Black Scarf' Alex Katz 2020.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 휴람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상안검 or 눈썹거상술 187만원 154만원~	하안검 + 지방재배치 187만원 154만원~	안면거상술 +목거상 880만원 660만원~			
이마 거상술 495만원 330만원~	코 성 형 363만원 264만원~	지방이식 +PRP 330만원 220만원~	가슴성형 660만원 550만원~	지방흡입 220만원 ~	이물질 제거 110만원 ~



“ 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	 최순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유성형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톨릭의과대학 졸업 노상호성형외과	 김용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라뎀성형외과	 최원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	 박차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린스뷰티메디칼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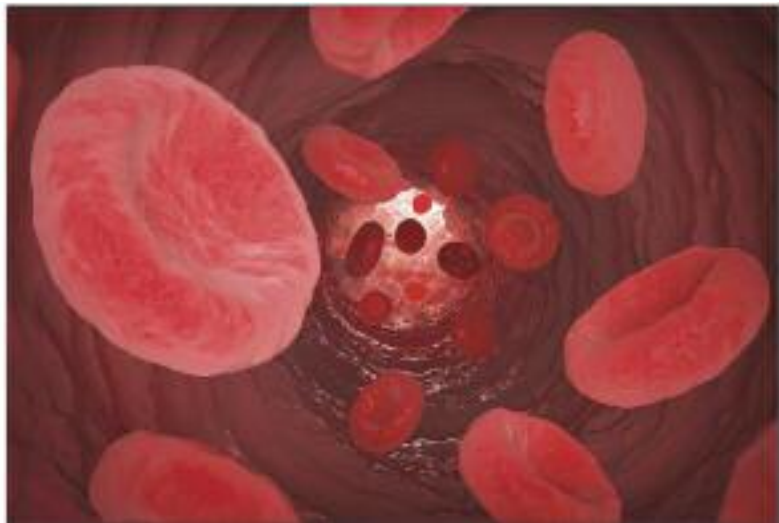
김수남
 하의의료사업담당

617.949.176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060 여성의 적, '고지혈증' 예방하려면

이번 주 휴람에서는 대표적인 성인병 질환인 고지혈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홍 진원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고지혈증, 생활 습관 개선 없이 방치하면 심혈관질환 합병증 위험 증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며,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한다. 이 만성질환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으로,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혈증은 지방 대사의 조절 이상으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이 증가하면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사람들은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

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모두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많이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지만, 그 양이 너무 적을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고지혈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상처부위에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침투해 쌓이는 과정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또한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췌장염 발병률도 높아진다.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질환으로, 검사 전까지는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금식 후 채혈 검사하여 총콜레스테롤 200mg/dL 이상, LDL 콜레스테롤 130mg/dL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인 경우 진단한다.

고지혈증 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식사요법, 운동, 체중 관리, 금연, 절주 등이 필요하다. 생활습관개선으로 나

아지지 않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약물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생활습관개선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 또한, 치료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약을 끊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양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버터, 베이컨, 소시지, 코코넛 기름과 팜유 등과 같은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적게 먹고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적은 콩류,두부, 잡곡류, 채소, 등푸른 생선, 해조류,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 주 4회 이상의 운동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홍진현 과장은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효과가 충분치 않거나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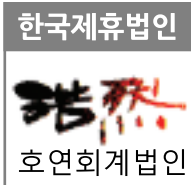
뇨병이나 심뇌혈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홍과장은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하고, 잦은 음주와 흡연은 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절주와 금연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고지혈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99) 재정칼럼 600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재정칼럼을 매주 작성해서 여러 한인 신문에 기고한지 600회가 되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칼럼을 쓴 지 12년째이다. 미국 전국을 다니며 강의도 하고 질문도 받고 정말 많은 분을 만났다. 전화 문의도 끊임이 없었고 블로그(Blog) 방문자도 300만 이상이 되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이상을 보내며 많은 분으로부터 재정과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어떠한 칭찬보다 더 큰 고마운 말이다.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언어도 익숙지 않고 모든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투지와 인내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나 남의 돈 한 푼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투자 역시 돈 버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일부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쉽게 생각한다. 주식투자가 쉽다면 투자한 대부분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투자 질문의 대표적인 것은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다. 투자에 만병통치약을 찾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투자는 없다. 이런 투자가 있다면 학생들이 대학가

서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너도나도 여기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사실을 머리에선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절박한 심정으로 대박 비슷한 투자를 몰색한다. 이런 것이 투자 사기로 이어지고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순간에 우연히 잘 된 투자 역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진다.

증권회사도 주식거래를 간편하고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투자자 마음을 부추긴다. 투자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증권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도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모든 회사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큼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가’ 인데 이것을 고객 스스로가 밝혀내야 한다. 재정문서를 매달 받아보지만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투자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질문해도 대강 흐지부지 넘어간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와 비슷하다.

미국 생활에 필요한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채권투자, 보험, 세금, 은퇴계획, 은퇴 후 생활비, 상속계획, 등 모든 재정에 관하여 칼럼을 연재했다. 특히 투자하며 발생하는 숨어있는 비용과 그 속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라는 책의 제목이 과장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우리 한인 동포의 근면과 성실을 투자에도 적용하면 모든 사람이 분명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미국에서 학부부터 공부하고 경제연구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그 후 많은 분의 자산을 운용하며 실제로 경험한 결과이며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주식투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수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실수하는 투자’ 는 1) 개별적인 회사에 투자, 2) 투자상품, 3) 뮤추얼 펀드 투자, 등이다.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재정 칼

럼 600회 연재하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매년 연평균 10% 수익률이다. 수익률 10%란 50만 달러가 약 22년 후 400만 달러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일반 투자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한다.

미국 부자 탐(Top) 10%가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90%를 차지한다. 바닥(Bottom)에서 50%는 주식시장에 1%도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결과는 단 0.7%에 불과하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미국에서 제대로 투자하면 누구나 돈 걱정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가 무엇인지 600회 동안 설명했다. 한인 동포 누군가에 재정칼럼이 학자금이나 편안한 노후대책에 도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칭찬과 격려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8세 풍월주(風月主) 춘추공(春秋公)(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추운 계절인 겨울, 정월 대보름 날이었다. 문희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김유신은 당시(625년경) 신라 조정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는 진평왕의 치세는 종말이 가까와지고 있었고,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는 분명 왕위 계승서열 상위에 끼여 있었다. 그래서 동생 보희를 김춘추와 혼인시켜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보희에게는 ‘무슨 일’ 이 있어서 김춘추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왕비의 자리마저 놓치고 말았다. 이 ‘무슨 일’ 이 삼국사기에는 “사고가 있어서 有故” 라고 기록되어 있고, 화랑세기에는 “병이나서 因病”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어찌 사소한 일로 귀공자에게 경솔히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315) 하면서 오라비 유신의 뜻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기록은 유교적 윤리관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반면에 작은 동생 문희는 오라비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김춘추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기에, 같은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매들을 지배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이 너무나도 상이함을 보이고 있기에 삼국유사의 기록에 고개를 가우뚱하게 된다(삼국유사에는 보희가 거절의 말을 한 후에 翫抄註, 즉 덧붙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옛 책에는 병病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화랑세기의 기록을 말함이 아닐까? 물론 일연이 삼

국유사를 저술할 당시에는 화랑세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모두 동일하게 김유신이 처음에는 보희를 김춘추의 짝으로 점찍었다는 면이 흥미롭고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기록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병이 난 것을 유고有故 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에 그날 분명 보희에게는 ‘무슨 병’ 이 있었다. 그 병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고려사(高麗史(김종서, 정인지 등 편찬)에 등장하는 작제건(作帝建)의 탄생설화를 보면, “신라 송악의 보육 집에 와서 목다가 찢어진 옷을 입는데 언니는 코피가 나서 나오지 못하고 아우가 대신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황제는 진의(辰義)와 동침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작제건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조부인 작제건의 탄생설화는 ‘보희와 문희’ 의 이야기, 즉 ‘매몽설화’ 를 완전히 표현한 것이다. 김유신은 보육으로 김춘추는 당황제로, 보희와 문희 자매 역시 언니와 동생(진)으로 장소와 시간적 배경 그리고 이름만 바뀌었다. 심지어 서형산(西兪山)은 오관산(五冠山)으로 나오고, 그 산에 올라 오줌을 누어 천하를 잡기게 한 것과 동생이 언니의 꿈을 산 것까지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언니가 ‘코피’ 가 나서 나오질 못했다. 언니의 코피는 무엇을 은유했을까?

314) 신라의 삼국통일은 문무왕대에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신라는 532년 금관가야를 멸망시켜 복속하였고, 최종적으로 562년에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황산벌 전투에서 대승하면서 사비성을 함락하였고 백제를 660년에 멸망하였다. 백제를 정복한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항전으로 겨우 막아냈지만, 연개소문이 죽은 후에는 그의 동생과 아들들을 중심으로 귀족간의 권력쟁탈전으로 국력이 급격히 쇠락되고 있었다. 이를 틈타 당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신라도 남쪽에서 공격하여 688년에 멸망시켰다. 그리고 당은 고구려 영토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8년 후인 676년에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대동강 북쪽으로 축출하였다. 고구려 영토의 북부지방인 만주 일대로는 진출하지 못하여 완전한 통일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문무왕은 661년 6월에서 681년 7월 1일까지 재위하였다.

315) 삼국유사(권1, 기이2 태종춘추공)의 기록에 보면, (유신이 아해(阿海)에게 웃고름을 달아드리도록 하니 아해가 말하기를 “어찌 사소한 일로 귀공자에게 경솔히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아지(阿之)에게 시켰다. 춘추는 유신의 뜻을 알고는 마침내 문희와 사랑했다. 이후 자주 내왕했다.) 아해는 보희이고 아지는 문희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택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김유신이 김춘추와 결탁하기 위해 기획한 ‘문희와 김춘추의 결혼’ 이야기를 삼국유사와 화랑세기를 통하여 풀어 보고자 한다. 정월 오기일, 즉 대보름날, 김유신은 집 앞에 김춘추를 불러 축국을 하다가 고의로 그의 웃고름을 찢었다. 그리고 이 웃을 기워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조용한 결방에 넣고는 큰여동생 보희를 불렀다. 그런데 보희는 이날 ‘무슨 일’ 이 있어서 김춘추에게 갈 수 없었다. 그러자 유신은 작은여동생 문희를 불렀다. 그리고 그날 역사는 이루어졌다(삼국을 통일하고 314),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장되었다는 왕릉의 주인공인 문무왕 김법민이 잉태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날이었으니 역사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열은 화장과 날렵한 옷차림에 빛나는 어여쁨이 사람을 부시게 했다. 춘추가 보고 기뻐하여 혼인을 청하고 예를 올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즉 첫눈에 반해 청혼하고 곧 결혼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료들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한 장면은 ‘날렵한 옷차림’ 이다. 날렵한 옷차림이란 아주 얇은 옷 한두겹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실내이기는 하지만 때는 연중 가장

보스톤 전망대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쌍어문의 시작과 끝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는 남방으로부터 벼농사 법을 받아 드렸다. 벼농사와 함께 인도도 드라비다 농경어 400여 단어가 우리말로 동화되었다. 쌀, 풀, 벼, 가래 등은 모두 인도에서 들어온 말이다. "가야" 역시 인도말이라고 하면 모두 놀라겠지만,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말이다. 인도의 아유티아 지역에는 가라(伽羅)라는 말이 있다. 가뭄이 들어 강물이 줄어들면 물고기들이 낮은 웅덩이로 모여들어 주민들이 쉽게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웅덩이와 물고기를 가라라고 불렀다. 그들은 하늘이 내려준 "가라"로 인해 생명이 보호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어문을 그려놓고 물고기를 숭배하고 하늘로부터 계속 보호받기를 원하게 되었다. 인도에서 쌍어문 숭배는 아유티아 지역에서만 믿어지고 있다.

페르시아 신화에도 "가라"라는 말이 나온다. 바다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고케레나"라고 부르는 나무 열매는 인류에게 만병통치의 영약이었다. 인류를 과멸시키려는 악신이 나무의 뿌리를 과 버리려고 두꺼비를 파견했지만 실패하였다. 알고 보니 나무 뿌리를 지키고 있는 두 마리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물고기 이름이 가라였다. 가라가지 성으로 고케레나 나무를 보호하여 나무가 잘 자라고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먹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 역시 쌍어문을 만들어 물고기를 숭배하고 물고기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어(神魚) 숭배사상은 BC 2700년에 아찌리아, 페르시아, 스키타이와 파키스탄 간다라, 아유티아, 방글라데시에 까지 이어서 되었다. 아유티아에서 피난길에 오른

허황옥 왕후 일가가 거쳐 간 중국 운남성에도 쌍어문이 있고 허씨네가 정착한 사천성에도 쌍어문이 있다. 그들이 쫓겨 간 중국 무창에도 쌍어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허황후가 정착한 김해에도 쌍어문이 있었다. 김수로왕 남릉 정문에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안향각에도 쌍어문이 있다. 허황후의 오빠 장유화상이 세운 김해 신어산 은하사에도 쌍어문이 있다. 대웅전 수미단에도 쌍어문이 선명하다.

쌍어문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야쓰시로(八代)시에 야쓰시로 신사가 있다. 일본 최초의 신사로 묘견(妙見)공주 히미코(卑彌呼)를 모시는 신사라 해서 묘견궁이라고도 부른다. 묘견공주는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도 소개가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한 여자를 받들어 왕으로 모시니 이름은 비미호(卑彌呼: 히미코)였다. 그녀는 귀신의 도를 섬김녀 능히 무리를 현혹케 하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지아비 없이 살았으며 남자동생이 옆에서 국사를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묘견공주 히미코를 모시는 야쓰시로 신사의 지붕 꼭대기에는 머리는 용의 형상인데 몸체는 물고기로 된 한 쌍의 쌍어문이 있다. 또 정문 처마에는 머리는 뱀이지만 몸체는 거북 모양을 한 구시와란 기와가 있다. 쌍어문과 거북은 가야의 국가 문장(文章)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히미코가 가야국 김수로왕의 딸이라는 추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김해 김씨 왕세계"의 신녀(神女) 기록의 연대가 히미코의 생존 연대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과 신녀가 남자동생과 함께 어디론가 건너갔다는 구절이 있다. 선견(仙見)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가 신녀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떠나 버렸다. 금관가야 대왕인 거



가야금관(국보138호)

등왕은 강가에 있는 돌섬바위에 올라가 선견왕자를 부르며 그리워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바위를 초선(招仙)대라고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규슈의 묘견(妙見)공주와 가야의 선견(仙見)왕자가 남매였다고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로왕과 허황후는 10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다. 첫째 아들이 거등왕이고, 둘째와 셋째 아들은 어머니 성을 받아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 7 왕자는 외삼촌 장유화상을 따라 방장산(지리산)에 들어가 성불(成佛)한 다음에 구름을 타고 떠났다고 한다. 한명 공주는 편년가락국기에 의하면 석탈해의 아들 석태자(昔太子)에게 시집을 갔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명의 왕자와 공주는? 선견왕자와 묘견공주?

재야 사학자 이종기씨는 묘견공주는 김수로왕의 둘째 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매년 11월 2일부터 이틀간 야쓰시로 시에서는 묘견공주가 야쓰시로에 도착한 것을 재현하는 묘견제(妙見祭)를 지내고 있다. 그들은 커다란 구사(거북이, 뱀)를 어깨에 매고 행진한다. 일본에서 거북과 쌍어문이 있으면 모두 가야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묘견공주는 가야에서 출발하여 야쓰시로에 도착한 것이다. 야쓰시로 시를 흐르는 구마천(球磨川)가에 세워진 하동도래비(河童渡來碑)에는 "지금으로부터 일천수백년전 삼천여명의 하동(河童)들이 이곳에 와서 바위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축제를 베풀었다. 이 축제가 오늘날까지 오레오레... 라이타이다"라고 쓰여 있다

.오레 오레 데-라이타는 영남지방 사투리로 오레오레 되었다는 말이다. 하동은 일본어로 갓과라고 부르며 야쓰시로 사람들은 예로부터 가라과라고 불렀다. 원래는 가라베(伽羅蜃)로 "가야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하동도래비는 가야사람들이 이곳에 온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규슈 남쪽 미야지키현에는 쿠지후르다케(구지봉)와 바로 옆에 가라쿠니다케(韓國岳: 한국약)라는 두 개의 산이 있다. 쿠지후르다케는 구지봉이고 가라쿠니다케의 가라쿠니는 가라(伽羅)의 일본어 발음이다. 바로 이 두산에서 일본의 건국신화 천손강림 신화가 시작된다.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에는 일본 개국왕 신무 천왕의 증조부 니니기노미코토가 쿠지후르다케에 강림하여 제천의식을 올린 후 가라쿠니 다케로 올라가 한반도를 바라보며 "여기는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카라쿠니(가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쿠지후르다케(구지봉)에서 강림할 때 이불 비슷한 보자기에 싸여 내려왔다고 한다. 동경대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교수는 "김해 구지봉에서 시작되는 가야의 건국신화와 구지봉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규슈 쿠지후르다케에서 벌어진 일본 건국신화가 일치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를 글을 발표했다.

우리 한국인들이 분명히 밝히고 싶은 진실은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건국신화는 구지봉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경남 김해 김수로왕릉 정문에 그려진 쌍어문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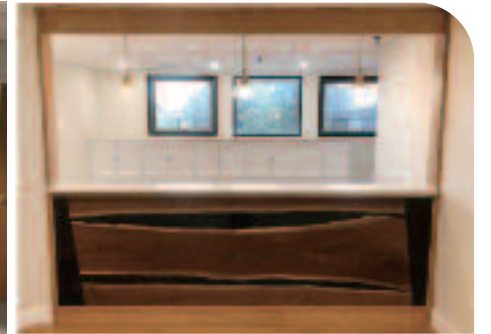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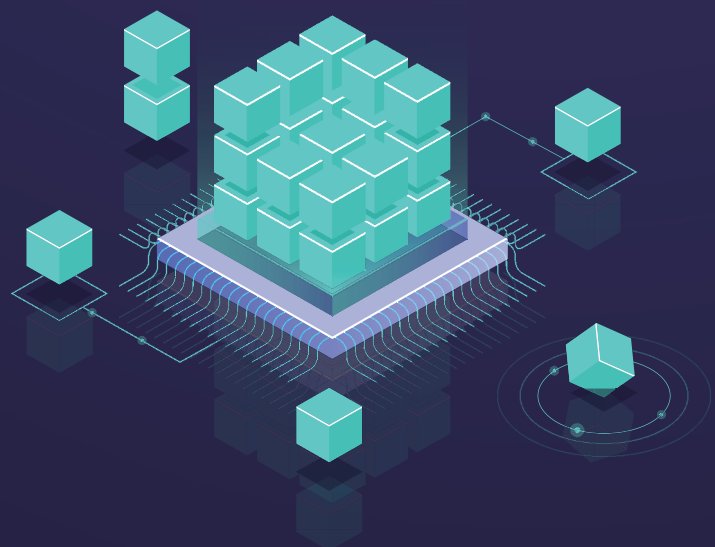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PHOENIX BUSINESS COMPUTING

Data driven Workflow Management Solutions from Experts
데이터를 사용한 업무 관리 프로그램 전문회사



Lead Architecture: Taewon Jin
taewonjin@phoenixbc.com
603. 205. 6679

Phoenix Business Computing, LLC has been building, supporting, and consulting hundreds database related projects for top enterprises and mid-size companies in US in the past 20 years.

Please contact us if you have:

- A project that has been stalled due to:
 - Not clearly defined scope and no project leadership support
 - Budget constraints (expensive to hire outside vendors)
 - Lack of internal database process experts or no internal support staffs
- An immediate need to support:
 - Existing applications, enhancements, or adding new feature
 - Sharing data from various sources and different data formats
 - Automation of data manipulation, integration, and delivery
 - Dynamic reports and timely aggregated data summarizations.
 - Scheduled jobs
- A new project that will automate your workflow management process by sharing data and decisions among people involved.

No charges if no values delivered to your company

피닉스 비즈니스 컨설팅은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백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젝트를 컨설팅에서부터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업무지원까지 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원하시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프로젝트가 진전이 없는 경우
 - 업무 범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리더십의 지원도 없을 때
 - 외부 전문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고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때
 - 사내 데이터베이스전문가 또는 지원 직원이 없을 때
2. 당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새로운 기능을 더하거나 보강할 때
 - 다양한 소스와 다른 데이터 포맷 상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할 때
 - 데이터 조정, 통합 그리고 발송을 자동화 하고자 할 때
 - 빠른 보고와 필요한 시기에 집계된 데이터 요약
 - 예정된 작업들
3. 데이터 공유와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작업 관리 절차를 자동화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귀하의 회사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